



뉴스 송신탑

경희대학교 한약학과 학생회장 신재석(3학년)씨는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다가 뜻한바가 있어 한약학과에 재입학하여 학생회 일을 맡고 있다.

한약학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학과과정 그리고 다양한 동아리활동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전국 한약학과 학생협의회를 5월에 개최하는 등의 정보를 인터뷰형식으로 양정화(경희대학교 한약학과 문화부장)씨가 알기 쉽게 집필해 주셨다. (편집자주)

▶ 경희대학교 한약학과 소개

기자 : 대학생이시죠? 무슨 과세요?

한약학과 학생 (이하 '학생' 으로 줄임) : 아, 네 한약학과예요~

기자 : 한약학과? 한의대에 다니시는 거예요?

학생 : 아니요~ 한약학과는 약학대학에 속해 있구요, 한약학과는 의사와 약사, 그리고 한의사 사이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한약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곳 이예요,

저는 경희대에 다니고 있는데, 우석대와 원광대에도 저와 같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자 : 한약학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우는 곳이지요?

학생 : 한약학과 학생들은 기초 한의학, 본초학, 한방 약리학, 방제학과 같은 한방과목과 더불어 유기화학, 생리학, 미생물, 천연물 등과 같은 필수 과학 과목들을 4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한방과목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1학년 때에 기초 한의학을 공부하게 되구요, 2학년 때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게 되지요.

현재 경희대학교 한약학과 2학년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방과목 중, 한방생리학은 1학년 때 수강한 한방기초론 과목의 연장선상에 있는 수업으로 한방의 기초이론 및 실제 임상에 필요한 진단학을 배웁니다. 한방기초이론은 음양오행(陰陽五行), 기·혈·진액(氣·血·津液), 장상(臟象), 경락(經絡) 등의 1학년 수업

(한방기초론)의 기초를 확실히 다지는 수업이고, 진단학은 이를 바탕으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강의목표로 하는 수업이지요.^^ 특히 이 수업은 1학년 때와는 달리 실제 중국의 중의과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의학(中醫學)교재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국어 원문 해석에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한의학과 비교되는 중의학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서 알차고 재미있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本草問答》(본초문답)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한약원전 과목도 2학년 한방과목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한문의 직역만을 위주로 했던(교재-《論語》) 한약한문-(1학년 과정) 수업과는 다르게 원문의 직역뿐만 아니라 제시되는 약재들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을 함께 수록하고 있어서, 고문(古文) 해석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약재들에 대한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2학년 때에 시작하는 본초학은 3학년에서도 이어지는데요, 각각의 한약재에 관한 각론으로 들어간다고나 할까요? 물론 세 학기에 걸쳐서 배우기에는 양도 정말 많고 힘든 점이 많지만, 본초 하나하나의 효능에 대해서 공부할 때면, 정말 뿌듯합니다 하하~

그 외에도 한약의 저장·유통에 관련된 공부도 병행하고 있어요. 저희 경희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까운 제기동 시장을 자주 견학하면서 현재 한약이 유통될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공부하고 있지요. 녹용이나, 진피, 그리고 지황에 관한 발표수업 내용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

기자 : 한약학과 학생들은 보통 약학대학 학생들이 하게 되는 실험과정도 수행하고 있나요?

학생 : 그럼요~ 물론이지요^^ 전 학년에 걸쳐서 약용식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거나 성분을 추출·확인하는 실험을 하게 되요. 특히 본초학 책에서 소개되는 약재의 포제법을 하나하나 직접 해보기도 하구요~ 전 특히 야교를 만들어보는 과정이 참 재미있었어요.^^ 학교내부와 외부에 있는 약초원에도 자주 견학하면서 자라나는 식물들을 관찰하기도 하지요. 경희대의 경우, 학교 안과 더불어 수원캠퍼스와 서초구- 내곡동에 큰 규모의 약초원을 가지고 있어요.^^

3학년이 되면 방학시간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논문을 준비하기 위한 실험과정에 들어 가게 됩니다. 크게 미생물실·본초실·천연물실·방제실·생약실·한방생리실·생화학 실등 일곱 군데의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한약재를 재료로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되요.

기자 : 와~ 정말 많은 심도 있게 한약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군요~ 너무 공부만 해서 이렇게 얼굴이 까칠까칠한건가요?

학생 : 하하~ 공부도 좋지만, 실은 전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속해있는 동아리들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특히 이번에 저희 과 친구들이 제기동에 새로 생기는 <동의보감타워>라는 건강백화점에서 5월 초에 전시회도 갖거든요^^

기자 : 아~ 서울시가 약령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 지정한 한방특구에 생기는 그 건강백화점 얘기하시는 거군요



~ 지상 18층의 주상복합건물로 꽤 큰 규모에서 약재 거래가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약학과 학생들은 그곳에서 어떤 전시회를 열게 되나요?

학생 : 크게 세 개의 동아리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게 된다고 해요. 평소 산행도 다니면서 약용식물 공부를 많이 하는 <본초기원학회>에서는 주요 식물을 사진으로서 전시하구요, 탕제기로 한약을 직접 달이는 데에 초점을 두는 <실습한약국>에서는 시음회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네요.^^ 이걸 비밀인데요~ 치자 등을 이용한 천연 염색제조와 은은한 향이 나는 약재들을 이용한 '방향칩 싸보기' 도 그 중 하나 라고 해요. 그리고 벤처동아리인 <경희한약2>에서는 '한방 초콜렛-감초' 와 같은 한약재를 이용하여 개발한 제품들을 전시한다고요.^^

여기에 오시면 저희가 교실 안과 밖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한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기자 : 정말 꽤기 넘치는 대학생활의 모습이 느껴지네요^^ 축제의 계절인 5월 달에도 한약 학과 학생들 많이 바쁘겠네요?

학생 : 그럼요~ 축제기간동안에 저희 과에서 자랑하는 것은 바로 주점(酒店)입니다.^^

드셔보는 분들마다 반응이 정말 굉장해요^^ 이번 5월 17~19일에 경희대에 놀러오세요!

저희가 직접 담근 약주의 맛이 주변의 꽃향기와 어우러져서 정말 일품일 겁니다!^^

그리고 5월 말에는 전국 한약학과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한협 (전국 한약학과 학생 협의회)을 개최합니다. 전한협은 한약학과 학생들의 학술 문화 유대의 의미를 가지는 1년에 단 한번뿐인 '한약학과 축제'와도 같아요. 아직은 인원수도 적고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재학생들과, 희망을 얘기해주는 3개 학교 교수님들, 뒷받침 해주시는 한약사 선배님들 모두 한마음으로 생각을 나누는 기회가 되지요.

그리고 우석대학교의 한약학과에서는 올해부터 선후배간의 보다 돈독한 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멘토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입생들에게 재학생 조언자를 맺어주는 의미를 갖죠. 학우들의 이름이 써진 쪽지의 제비뽑기를 통하여 서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1학년의 이름이 써진 쪽지를 2학년이 뽑아 그 이름을 뽑은 학생끼리 서로 멘토가 되는 것이예요. 멘토 라는 제도의 힘을 빌려 소외되는 학우 없이 더욱더 친근하게 될 수 있게 합니다. 친하던 사람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닌 잘 몰랐던 학우들도 이를 통해 연결되면서 더 잘 알게 될 수 있게 만들어 학과 선후배간 따뜻한 마음(情)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자 : 한약학과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들으니, 정말 한약의 미래가 걱정 없을 것 같네요!

한약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열심히 공부하시고 발로도 뛰어다니길 바래요!!

김상덕 회장이 이끌고 있는 서산동 회원은 전체적으로 1000여명이고 100여명은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인터넷 동우회이다. 이번초부터 서삼동의 회원의 동정과 알림사항을 매호 연재할 계획이다 모든 회원들의 감상문, 산행일지, 일반독후감, 기타 회원에 관련 모든 사항을 게재할 예정이오니 적극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호에는 김상덕 회장이 서산동에 관련된 내용을 집필해주셨습니다
원고는 e-mail : kacocoa@hanmail.net 또는 「월간인삼·약초」편집인 김규웅 018-272-470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서산동 동우회(cafe daum.net / sansam seou)

서.산.동 동호회 모임과 활동

저희 동호회는 '산을 사랑하고 여행과 만남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심마니 동호회'이며, 김상덕 회장을 비롯하여 현재 회원은 1,148명으로 다음 카페에서 손꼽히는 동호회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회원 하나하나가 화합과 결속으로 모여 매주 일요일, 휴식과 건강이라는 산악 이념을 추구하며, 자기 개발과 보람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운동도 할겸 산행을 하고, 야생 산삼과 각종 산야초 및 균사체에 대한 고찰과 자연사랑·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17일 날 지상파 방송에서 저희 동호회가 산삼을 캐는 장면을 촬영을 하고, 감정사가 나와 그 날 캔 산삼을 감정도 했습니다. 10월 3일 날은 모든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산삼을 캐서 꼭 필요로 하는 병약자에게 나눠 주고, 양로원을 방문하여 증정한 일도 있습니다.

저희 서.산.동 동호회는 이익을 추구하여 캔 산삼을 판매를 하지는 않고, 자기가 꼭 필요한 양만 가지고 동호회에 기증하여, 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이 병약한 이웃에 대부분 전달하여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산삼을 캘 수 있다

삼은 인삼人蔘의 본딴말이며 속어로 '삼'이라고도 합니다. 인삼이란 말은 뿌리 모양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재배 삼蔘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사용되어 온 이름입니다. 삼에 대한 명칭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천되어, 삼이 생육된 장소에 따라서 이름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자생하며 성장한 삼을 산삼山蔘·야삼野蔘이라 하고, 논이나 밭에다 삼포를 만들고 씨를 뿌려 자라게 하여 수확한 삼을 포삼圃蔘·가삼家蔘이라고 합니다. 밭에서 캐내어 깎지 않고 말리지 아니한 것을 수삼水蔘, 햇볕에 건조한 삼을 백삼白蔘, 솥에 넣고 찌서 말린 것을 홍삼紅蔘이라고 합니다.

또한 생산 지역에 따라 개성에서 생산된 삼을 송삼松蔘, 금산에서 생산된 삼을 금삼錦蔘, 평북 강계에서 생산된 삼을 강삼江蔘, 강원도 인제 부근에서 생산된 삼을 기삼麒蔘이라고 합니다.



삼은 한반도와 중국 만주 지방과 러시아 연해주 일부 지역에서만 생육되고, 이 중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 생산된 삼을 가장 약효가 좋은 삼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기후와 토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삼을 캐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정찰이 앞서야 합니다.

산삼은 심산유곡에 있는 것만 아니라 과거에 인삼 농사 경력이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산삼은 산삼의 열매가 되었던 인삼의 열매가 되었던 삼씨가 떨어지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삼씨는 8월경부터 빨갭게 익는데, 이것을 까치나 꿩, 비둘기가 먹고 날아가서 산자락 근처나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배설하면 산삼이 자라게 됩니다. 물론 깊은 산 속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삼의 열매가 떨어져서 자생하면 소위 천중天鍾이라는 산삼이 되지만 현재는 거의 멸종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산삼은 산불이 났던 산이나, 간벌을 했거나, 물이 늘 고여 있는 땅이나, 서북간 방향을 싫어합니다. 또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림 속에서도나 참나무 · 떡갈나무와 같은 활엽수림만 있는 곳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산삼은 위의 조건이 아닌 곳에 싹을 틔우며 땅 속에서 30 년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산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일조량과 알맞은 습도와 기후가 있어야 하고, 동북간 방향의 산이나 침엽수와 활엽수가 2:3 비율로 배열된 곳에서 잘 자랍니다. 이런 조건에다 산의 동북간 방향으로 흐르는 시냇물이 있고, 시냇물을 스쳐서 산으로 달려오는 물바람이 있으면 산삼이 자생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곳입니다.

산삼의 자생지, 즉 채삼 터가 개발되면 대체로 3, 4년간 산삼을 캐 수 있기 때문에 채삼꾼들은 자기 농장으로 여깁니다.

정찰이 끝나고 산행 목적지가 결정되면 마음의 정돈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일확천금을 위해서 허황된 생각에 젖어 있거나 요행수를 바라면 산삼을 볼 수 없습니다.

채삼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늙은 부모님이나 병에 걸린 이웃 사람을 주겠다고 마음먹고 산행을 하면 산삼을 잘 캐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는 사나운 맹수와 독사, 벌 떼 같은 동물이 많고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절벽과 낭떠러지기 등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개인 누구나가 안전사고와 위험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두 사람 이상이 다녀,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신경을 써야 합니다.

2006년 5월

서울 산삼 동호회

회장 김상덕

정관장 홍삼에 위변조 식별 칩 부착

국내의 대표적인 홍삼제품인 정관장 홍삼에 위변조 식별 칩이 부착된다.

또 정관장 홍삼의 대대적인 중국, 대만, 미국 등 해외 수출시장 공략도 다시 본격화된다.

한국인삼공사 서원석 사장은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취임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에서 정관장 위조삼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수출용 정관장 홍삼 전제품에 비밀키 전자 암호시스템을 이용한 RF(Radio Frequency)-ID 칩을 부착해 판매시점에 단말기를 통해 진품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를 위해 홍콩, 중국, 대만, 미주지역 1천여 지정판매점에 칩을 통해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와 함께 2008년까지 해외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 수출전략을 수립, 본격적으로 전방위 해외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서 사장은 "전세계 4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정관장 홍삼은 수입상 등이 주도한 유통상의 문제로 2002년 수출이 부진했지만 차차 회복돼 올해는 수출실적이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수출이 본격허용된 중국을 비롯, 미개

척 시장 개척에 나서 2008년에는 해외수출실적 1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정관장 홍삼의 수출규모를 보면 2001년 4천30만8천달러에서 2002년 1천626만5천달러로 줄었다가 2003년 3천297만5천달러, 2004년 5천500만3천달러의 실적을 보였다.

공사는 우선 지난해 6월 수출이 처음으로 공식허용된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베이징에 전시판매장을 개설하고 상해에는 중국 대형 유통업체와 제휴, 판매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중국당국에 수입허가제품으로 등록된 9개 제품 외에 올해 레드맥스, 화애락, 홍삼비타 등 6개 제품의 신규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만 시장 유통망을 대대적으로 정비, 정관장 지정판매점을 올해 말까지 400곳으로 확충하며, 미국에는 올해 20곳, 내년 30곳의 전시판매장을 증설, 소비자들과 의판매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공사는 또 최근 미주, 유럽 등에서 농산물 안전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인삼시장에서 품질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삼분야에 생산에서 수확까지 농산물 처리 전 과정의 안정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인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공사는 인삼제품이 GAP인증을 받게 되면 소비자신뢰도가 높아지고 해외수출을할 경우 통관도 쉬워져 우리나라의 인삼수출이 본격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한약재 유통실명제 실시

앞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 규격품에 생산자나수입자, 품질검사기관이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한약 규격품 유통실명제를 담은 한약재 수급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현재는 한약 규격품에 제품명과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만 표기토록 돼 있으나 한약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유통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복지부측은 밝혔다.

개정안은 또 원산지 위·변조가 많은 인삼 규격품의 경우 그동안 제조업소와 도매업소에서 만들 수 있게 해오던 것을 고쳐 제조업소에서만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한약 규격품을 살 때 품질검사 여부를 검사필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되고 불법·저질 한약재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는 등 한약 유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